

중국 해외유학의 전개과정과 국가정책

安仁海*

<목 차>

1. 문제제기
2. 중국의 해외유학 역사
3. 개혁·개방이후 해외유학의 추이
4. 우수인재정책 및 유학파의 귀국 후 활동
5. 해외유학 엘리트들의 사회적 영향력
6. 중국의 해외유학정책에 대한 평가

1. 문제제기

중국의 종합적 국력은 무엇보다도 13억을 넘는 엄청난 인구와 광대한 영토에 기반을 두고 산출되는 경제력에서 나온다. 세계 500대 기업의 대부분이 중국에 앞을 다투어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경쟁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세계 제조업의 블랙홀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중국이 2007년 세계 각국으로부터 유치한 직접투자(FDI)는 835억 달러로 세계 1위를 차지한다.¹⁾ 중국의 교역액은 개혁·개방정책이 최초 도입된 1978년에는 206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약 2조 5,500억 달러에 달했으며,²⁾ 2010년에는 세계 최대무역국이 될 전망이다. 아시아에 몰아닥친 외환위기에 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으며, 최근 10년간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평균 약 40%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2009년 3월 말 현재 1조 9,537억 달러로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다.³⁾

이처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종합국력의 신장을 위해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고급인력양성을 통한 인재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인재강국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人才財源是第一財源”이라는 관점을 표명하였다. 이 한 구절이야말로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이 우수한 인재에 달려있음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후 주석은 인재유치를 위한 제도 및 기구를 새로이 설립하고, 귀국 유학생이 인재재원의 중요한 축임을 강조하며, 국내 인재를 물론 해외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는 우수인재재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을 피력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의 성(省) 정부는 해외유학생들 중에서 우수 인재를 어떠한 방법으로 유치하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계속 연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국무원 각 부처가 중심이 되어 그 산하의 각 국책 연구소가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있다.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엘리트에 의한 국가발전 전략을 기획하는 근간에는 실제로 우수한 두뇌들이 두터운 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실무적인 면에서 이들이 국가발전전략을 총괄적으로 기획하며 거대한 중국의 국가발전 방향키를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과학교육 및 과학기술에 의한 국가발전 전략, 인재강국에 의한 국가발전 전략을 목표로 설정한 이래, 중국의 우수인재 양성 환경과 귀국하는 인재들의 창업 여건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이는 귀국 유학생들에게 천재일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 각처에서 유학중인 중국 학생들에게는 귀국의 황금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라는 조건하에서 한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는 대개 그 나라의 인재 집적도에 달려있다.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에서 경쟁의 본질은 인재유치의 경쟁이다.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이래 30년이 넘는 현

* 高麗大 國際學部 教授.

1) http://www.unctad.org/sections/dite_dir/docs/wir08_fs_cn_en.pdf.

2) 《세계일보》 2009.1.6.

3) 《서울신문》 2009.4.13.

시점에서, 중국은 국내에서 해외유학을 통한 인재 유치와 유실에 대해 연구 중에 있다. 인재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부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또한 인재 유실을 가져오는 장애요인도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 국내의 경제적 요소, 과학기술적 요소, 교육 요소와 정부정책면에서 우수 인재 층을 귀국시키기 위해서는 만족할 정도의 경제·기술적 환경과 정책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아직도 그러하지 않다는 비판적 연구 분석도 있다.⁴⁾

인재쟁탈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적 현상에 비추어 중국은 경제, 과학기술, 교육, 정부정책 방면에서 선진 제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인재 유치면에서도 열세에 처해 있다. 따라서 우수한 중국인 인재들이 선진국에 유학한 후 그 나라에 계속 영주하거나, 중국 국내 제반 환경이 열악함을 타감하며 학업을 마치고 귀국하지 않는, 이른바 인재유실이 장기적 시각에서 국가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고 있다. 다행히 1990년대 후반, 귀국 유학생들을 위해 창업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이는 인재강국전략과 창조형 국가건설을 실현함에 있어서 중요한 시금석이 되었다. 이와 같은 창업단지는 중국이 21세기에 주도적으로 과학기술을 창조함에 있어서 전진기지역활을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북경 귀국유학생 창업단지(北京海歸留學生創業團地)'가 급속하게 발전해 왔던 경험이 이를 증명한다.

해외유학을 통한 국가엘리트의 양성은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나타난 현상이지만, 최근 30년 동안의 경험은 중국 국가발전전략의 변화, 정치·사회체제의 변화, 지배엘리트의 구조 변화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중국의 국내외적 시대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해외유학을 통한 엘리트 양성의 추이와 변화 그리고 그들이 귀국하여 중국의 국가발전전략, 체제변화 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먼저 중국의 해외유학 역사를 개관한 후(2장),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전체 유학의 추이를 살펴본다(3장). 다음으로 해외유학 출신 우수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유치정책과 국가기관에 의해 파견된 유학생의

추이와 귀국 이후 활동을 살펴보고(4장), 또한 해외유학 엘리트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분석한다(5장). 마지막으로 중국의 엘리트 양성전략 및 해외유학정책에 대해 평가해 보고자 한다(6장).

2. 중국의 해외유학 역사

중국의 해외유학 역사의 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국 국내학자들이 연구한 중국 유학사를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 우선 청말이 유학사의 시발점이 된 이래, 5·4운동 이후에서 1920년대까지의 시기는 점진적 발전추세를 이어갔던 시기이다. 신중국 건립에서 문혁까지의 시기는 기본적으로 정체기라 할 수 있으며, 국내 유학 붐을 일으키는 것은 국내 정치·경제 노선의 영향을 받은 개혁·개방 이후의 1980년대이다. 그리고 이 유학 열기는 90년대 계속 상승하여 중국인의 유학 열과 국내 학자들에 의한 유학연구 양면에서 모두 확대 발전하게 된다. 1980년대 국내학자들에 의한 유학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된 대상 지역은 대만과 홍콩이었다. 중국인 유학역사의 이해를 도와주는 최초의 중국 유학사 연구는 중국유학교육의 창시자인 容闈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의 저서가 1909년에 영문 《My Life In China And America》로 뉴욕에서 출판되었고, 몇 년 후 1915년 《서학동점기(西學東漸記)》라는 이름으로 중국 국내에서 출판되었다.⁵⁾ 이는 20세기 초, 중국 해외유학의 역사는 미국유학사에서 출발함을 의미한다.

신중국 건립 이래, 중국의 해외유학정책과 국가발전전략이 국가적으로 채택되는 계기는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노선 주창이었다. 당시 서방 선진 국가들과의 첨단과학기술 분야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중국에서는 1978년부터 대규모 해외 유학공작이 진행되었다. 1977년 8월, 덩샤오핑은 중국이 세계

4) 周桂榮·劉寧, 《現代財經(Modern Finance & Economics)》, No.2, 2006 참조.

5) 容闈, 《西學東漸記》, 1915.

선진국가의 과학기술을 따라잡고자 과학과 교육 분야에 먼저 착수하여 해외 파견유학생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계기로 같은 해 12월, 중국은 개혁·개방 후 미국으로 많은 수의 유학생을 파견하며 유학공작의 서막을 올렸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해외 파견 유학생 수는 40만 명에 달하였으며, 중국 근현대사에 있어서 예전에 없었던 대대적인 유학 붐이 조성되었다. 이는 오늘날에 이르러 국내·외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개혁·개방 이래 중국대륙인의 해외유학은 크게 3단계로 나뉘 볼 수 있다.

제1단계(1978-1983)는 수적으로는 적지만 국가공식파견 유학생 수가 많았던 발전의 초기단계이다. 이 기간 해외유학 인원 중 학위취득을 목표로 한 대학원생의 구성 비율은 10%에만 머물렀고, 그 대신 방문학자와 연수생의 비율이 80%를 차지하였다. 개혁·개방 이래, 1981-1983년은 중국 유학 붐이 일어나는 초기단계였다.

제2단계(1984-1988)는 중국 정부가 자비유학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며 국가공식파견 유학생과 자비유학생이 중국 유학생의 두 흐름을 형성하는 시기이다. 1984년 12월, 국무원이 공표한 <자비유학의 잠정규정>에 따르면 자비유학은 대외 개방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표출된 것이며 이는 국가적 측면에서는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루트임을 재차 확인하였다.⁶⁾ 따라서 중국 국민은 합법적이고 정당함을 전제로 할 때, 국외로부터 입학허가서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유학 조건에서는 학력과 연령 그리고 유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모든 국민은 자비로써 해외유학을 할 수 있도록 각 지방 정부는 지지하고 이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는 1986년 5월 이에 관련된 정책을 표명함으로써, 이 기간을 계기로 국비와 자비유학생수가 점진적으로 늘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1985-1988년은 유학 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시기였으며, 이와 함께 유학이라는 명목 아래 적지 않은 중국 내국인이 해외에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해외이민을 떠나기 위해 이를 이용하였다.

제3단계(1989-현재)에는 출국유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그 중에서 자비유학생 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89년 이래로 형성된 자비유학이 중국인 유학의 대세를 이어가고 있다. 1990년대에 이르러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일어나자, 세계 각국이 인재유치 경쟁에 전력을 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도 역시 1992년 '지지유학, 격려귀국, 왕래자유(支持留學, 鼓勵回國, 來去自由)'라는 유학공작방침을 표명하였다. 더불어 해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재유치전략, 즉 조국현대화 발전을 위한 귀국유학 공작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유치하고자 국가적 차원에서 전력투구를 하고 있다.

1989-1992년은 1989년의 천안문 사태로 인하여 출국 자체가 비교적 민감했던 시기를 거쳐, 1992년 중국공산당 제14회 三中全會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결정>에서 중국정부는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유학공작 및 방침과 정책면에서도 중대한 정책 조정을 하였다. "유학을 지원하고, 귀국을 장려하며, 출입국은 자유롭다"라며 국가가 귀국 유학생의 잠재적 역량을 인식하고 국내 우수한 인재를 해외로 보내고 해외에서 귀국하는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1993-1996년은 중국정부의 유학정책이 규범화, 법제화를 도모하는 시기이며, 1993년은 자비유학정책에 대한 조정을 통해, 경로를 확대 개방하였다. 그리고 1996년은 국가가 공식파견 하는 국비유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 시기(1993-1996년) 정부의 자비유학과 국가 공식파견유학에 대한 정책조정 의미는 중국인 개개인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보장과 제약아래 유학이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표명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개혁·개방 이래 20여년의 경험(80년대의 무분별한 유학 열)을 바탕으로 1996년 이후에는 중국 유학교육이 제도적으로 성숙하는 단계에 진입하였다.⁷⁾

이에 따라 국가유학기금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이는 국가공식파견 유학 사업에 대한 국가의 주요한 개혁내용이라 할 수 있다. 1996년 기금위원회가 설립

6) 國務院, 《自費留學暫定規定》, 1984.

7) 《光明日報》, 1996.10.4.

된 후, 국가 공식과건 유학 정책은 선발, 과건, 관리의 실행 방법을 근본적으로 조정·개선하였다.

따라서 지난 10여 년간 국가유학기금위원회는 국내사회의 발전과 변모에 순응하여 스스로를 혁신함으로써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국가 공식과건 유학의 선정절차를 모색하게 되었고, 국가 공식과건 유학공작이 점진적으로 법제화, 제도화, 규범화하는 데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해외유학 선발작업이 점차적으로 다각적인 방식과 경로를 통하여, 새롭고 다양화된 양상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국가 공식과건 유학의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합격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3. 개혁·개방 이후 해외유학의 추이

3.1 개혁·개방 이후 해외유학 추이와 정황

중국 교육부의 공식발표 통계(개혁·개방 이후의 해외유학 추이, 2004)를 보면(<표 1> 참조), 1978년부터 2003년 말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출국 유학하고 있는 전체 유학생 수는 70.02만 명으로(2004년 81.5만 명, 2005년 93.34만 명), 국가공식과건, 단위(기관)공식과건 및 자비유학 등 세 가지 방식을 통하여 108개 국가 및 지역의 대학 및 고등교육 기관에서 학습 혹은 연구를 진행하였거나 하고 있다. 같은 기간(1978-2003년) 귀국 유학생 수는 17.28만 명이며, 여전히 52.74만 명의 해외거주 유학 인원 중 35.66만 명이 국외고등교육기관에서 학습 혹은 협력연구와 학술방문 중에 있다. 그 분포는 미주 36.45%, 유럽 28.06%, 아시아 22.01%, 대양주(오세아니아) 12.89%, 아프리카 0.59%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표 1>에서 보듯이 1990년대 중반부터 귀국 유학생 비율이 현저

히 떨어지고 있다. 1996년의 경우 귀국율이 30%이상이지만, 2002년이 되자 귀국율은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귀국인수의 절대 수는 매년 증가하지만 출국인수에 대한 비율은 떨어지고 있다. 2003년까지의 통계로 보면, 출국 유학하고 있는 총수는 70.02만 명 중, 여전히 해외에서 유학 혹은 체류하는 인원이 52.74만 명으로 총수의 75%이상을 차지하며, 귀국한 인수는 24.7%에 지나지 않는다.

2003년 한 해의 출국 유학인원 총수는 11.73만 명이며, 그 중 국가공식과건의 비율은 전체 유학의 2.56%(3002명), 단위(기업)공식과건은 4.39%(5144명), 자비유학이 93.5%(10.92만 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학대상 지역은 유럽 49.8%, 대양주 22.5%, 미주 15.4%, 아시아 10.5%, 아프리카 1.8%를 차지한다. 2003년 한 해의 귀국 유학인원 총수는 2.01만 명이며, 부분별로는 국가공식과건 2638명, 단위(기관)공식과건 4292명, 자비유학 1.32만 명이다. 귀국 인원 중 유럽에서 42.7%, 아시아에서 25.1%, 미주에서 22.7%, 대양주에서 9.3%, 아프리카에서 0.2%가 귀국하였다.⁸⁾

<표 1> 1978~2003년 중국 해외유학 관련 현황

년도	출국인수 (인)	귀국인수 (인)	과학연구투입비 (천만元)	교육투입 (천만元)	1인당GDP (元/人)
1978	860	248	528.9		379
1980	2124	162	645.9		460
1985	4888	1424	1025.9		853
1986	4767	1388	1125.7		956
1987	4703	1605	1137.9		1104
1988	3786	3000	1211.2		1355
1989	3329	1753	1278.7		1512
1990	2950	1593	1391.2		1634
1991	2900	2069	1606.9	7315	1879
1992	6540	3611	1892.6	8670	2287
1993	10742	5128	2256.1	10599	2939
1994	19071	4230	2682.5	14888	3923

8) 《神州學人》, http://www.chisa.edu.cn/chisa/article/20060606/20060606016158_1.xml

1995	20381	5750	3023.6	18780	4854
1996	20905	6570	3486.3	22623	5576
1997	22410	7130	4088.6	25317	6054
1998	17622	7379	4386.0	29491	6308
1999	23749	7748	5439.0	33490	6551
2000	38989	9121	5756.0	38491	7086
2001	83973	12243	7033.0	46377	7651
2002	125179	17945	8162.2	54800	8214
2003	117307	20152	9755.0	62083	9101

* 자료출처: 中國統計年監(2004), 中國科學技術統計年監(2004)

중국 교육부가 발표한 공식통계(2006년)에 의하면, 2005년 한 해의 출국 유학인원 총수는 11.85만 명이며, 그 중 국가공식과건 수는 3979명, 단위(기업)공식과건은 8078명, 자비유학이 10.65만 명이며, 귀국 유학인원 총수는 3만5천명, 그 중 국가공식과건 3008명, 단위(기업)공식과건 4770명 자비유학 2.72만 명이다. 지난 2004년에 비해 2005년에는 자비유학수가 2.1%증가하면서 자비유학 귀국인원들의 귀국율이 전년에 비해 47.9% 증가하였다. 1978년-2005년 말까지 20여 년의 시간을 거치며, 중국은 총 93.34만 명의 해외유학인원 중 23.29만 명이 귀국하였다.

3.2 학문별 및 국가별 분포

유학생들의 전공은 기존의 거의 모든 학과를 포괄하고 있으며, 유학의 양적 규모와 총수는 중국 내 차원에서는 물론 세계적 범위에서도 그 선례를 볼 수 없다. 근래 몇 년 동안, 실제 해외유학 인수는 매년 10-12만 명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중국이 국가적으로 중시하는 학문에 대해서는 <국가자연과학기금 '11차5개년' 발전계획>⁹⁾을 보는 것이 유용하다. 본 기금이 중점 지원하는 분야

9) <중국자연과학기금“十一五”발전계획>, 《神州學人》, 2006.3. <중국사회과학기금>에

는 자연과학, 공정과학과 관리 과학에 비중을 두어, 향후 5년간 다음의 18개 학과(수학, 물리학, 화학, 천문학, 지구과학, 생물학, 농업과학, 의학, 역학, 공정과학, 신식과학(信息科學), 재료과학, 능원과학(能源科學), 배경과학(環境科學), 해양과학, 공간과학, 뇌과학 및 인지과학, 관리과학)를 중점 지원한다.

해외유학 관련 정황에 대한 종합적 분석, 대조와 연구를 통하여 보면 최근 해외유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1) 총 유학생 수량의 증가속도가 비교적 빠르다. (2) 미국과 유럽으로 유학하는 비례가 비교적 여전히 높다. (3) 유학 대상국의 선택 면에서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4) 평균 학력과 수준이 비교적 높다. (5) 유학생의 대다수가 우수한 학생들이다.

<중국인의 해외유학과 귀국과에 관한 상황 연구서> 10)에 의하면, 1978-1997년 20년 간, 중국인의 유학인 총수는 거의 40만에 이르며, 이들은 세계 103개 국가 및 지역이 대상인 가운데, 그 중 90%가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에 집중되어 있었다. 유학인원 중 연수생 비율은 1982-1985년의 58.9%가 1994-1995년의 20%로 감소하는 반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유학추세는 1982-1985년의 37.2%에서 1994-1995년의 66.3%로 상승하며 그들의 연구영역 또한 확대되었다. 1998년 이후는 유학인원의 계속적인 증가 추세와 더불어 유학대상국 또한 다원화된다. 대상국은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가 여전히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만, 유럽국가로의 유학인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통계에 의하면, 1978년 개혁·개방 첫 해 중국인의 미국 유학생 수는 단지 78명이었으나, 2000년 한 해 1.7만 명, 2001년 2천명이 증가하여 1.9만 명에 이른다. 미국 국제교육연구소 통계에 의하면, 중국인의 미국유학생 중, 학사학위의 수는 1999년 누계 51,001명에서 2000년 누계 54,466인, 2001년 누계 59,939명으로 빠르게 증가하며, 미국 내 해외유학생 수 중 중국이 단연히 1위를 차지한다.

대해서는 전국철학사회과학계획관리공실 홈페이지 <http://www.npopss-cn.gov.cn>, 혹은 중국교육부 인문사회과학홈페이지 <http://www.sinoss.net> 참조.

10) 於洪璋, <中國海外留學人員和“海歸派”的狀況調研報告>, *Journal of Ningbo University of Technology* March 2006(논문작성일 2005.10.15, 발표일 2006.3).

동시에 일본, 호주, 캐나다에서도 중국인 유학생 증가 추세를 이어간다. 중국인 유학생 수가 일본국내 총 유학생 수에 차지하는 비중은 70%이며, 3년 이상 일본국내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 수 역시 1위를 차지한다. 호주 이민국의 통계에 의하면, 2000년과 2001년에 중국인을 대상으로 발행한 유학 비자는 14,948개와 12,000개에 이른다.

또한, 중국 유학생이 유럽으로 향하는 추세가 확대되고 있다. 1978-1997년 20년간, 재영국 중국인 유학생 수는 8000여 명에서, 대략의 통계이지만 2005년 5만 명을 초월하여, 재영국 유학생의 중국인 점유비율이 23.63%이다. 영국 문화위원회의 통계에 의하면, 2001년 한 해 1.7만 명의 중국 유학생이 영국 정부 발급의 유학생 비자를 취득했으며, 이 수는 2000년 중국 유학생이 미국으로 향한 숫자와 비슷하다. 지금까지 중국 유학생이 가장 많이 있는 국가로 미국이라는 인식이 앞으로는 유럽이라는 인식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재독일 중국대사관 교육 참사관 劉京輝에 의하면, 2005년 말 재독일 중국인 유학생 수는 약3만 명, 그 중 3분의 2이상이 근래 3년 이내에 왔다는 것 외에 네덜란드, 아일랜드, 프랑스, 스웨덴, 그리스 등 유럽국가가 받아들이는 중국인 유학생 수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중국교육부 유학업무부 러시아 담당 高寒同 고문에 의하면, 재러시아 중국인 유학생 수는 이미 1만 명을 넘어섰으며, 그리고 중앙아시아 각국에서도 중국인 유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유학생들 선택의 목적지는 이들 국가 외에 대양주의 뉴질랜드, 아시아의 한국, 태국, 싱가포르,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 그리고 인구 겨우 67만의 The Republic of Cyprus에까지 분포한다.

4. 우수인재 유치정책 및 유학과의 귀국 후 활동

개혁·개방을 추구한 이래 현 시점은, 중국이 국내 전 지역의 소강사회(小康社會) 건설에 진입하는 새로운 역사적 단계이다. 중국 국내 여건은 예전과 달리 귀국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에서 전보다 훨씬 유리한 환경적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종합국력 상승기에 있어서 빠르게 변하는 국내 경제사회 환경과 21세기 중국의 세계화에 보조를 맞추고자 인재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4.1 중앙정부의 유치정책

우수한 영재 유학생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2000년 국무원은 <해외 고급 인재의 귀국 장려에 관한 의견>의 제정 및 실시를 승인하였다. 국가는 '제10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매년 1만 명 내외의 귀국 유학생을 유치하여 그들이 국가경제사회 건설과 현대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사업목표로 삼고 있다.

<표 2> 1985-2000년 역대 중국 유학생 출·귀국 및 해외체재 총인원수¹¹⁾
(단위: 만인이며, 각 년도까지 누계 수)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출 국	4	4	6.4	7	8	—	17	19
귀 국	1.65	1.7	2.2	—	3.3	—	5	6
해외체재	2.35	2.3	4.2	—	4.7	—	11	1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출 국	21	23	25	27	近30	30多	32	34

11) 程希, <對優秀歸國留學人員的若幹分析>, 《華僑華人歷史研究》, 2001.6, 第2期에서 재인용.

귀 국	7	7.5	8.1	近9	9.6	約10	11多	14
해외체재	14	15.5	16.9	17多	20	20	20多	20

국가인사부는 유학생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경우, 현지의 인사부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협력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녀가 중국 국내에서 초·중등학교에 입학하여야 할 경우, 사업체 소재지의 교육 행정부서는 그 부근에서 조건이 비교적 우수한 '외국어학교'에 입학시킨다.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생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일정하게 특혜를 줄 수 있다.

국가 인사부가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귀국 유학생이 국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계속 확대시켜야 한다. 귀국근무와 국가에 대한 기여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일시 귀국하여 정착할 수 없는 해외 유학생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협력연구, 위탁연구, 기업창설, 중개 서비스뿐만 아니라 학술강연, 학술교류, 자문 등도 진행할 수 있다. 중국 내의 과학기술과 경제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여타 방식이라도 도모할 수 있다.

둘째, 귀국유학생 창업단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그들의 창업을 위한 기지를 마련해 주고 유학생 창업단지를 통하여 해외 잔류 유학인재들을 귀국으로 유도하여 과학기술 성과를 업그레이드 하는 주요기지로 건설해야 한다. 창업단지의 건설은 다양한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와 국가관련 부서가 공동으로 창설할 수 있고, 각 지역이 자체적으로 창설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들과 협력하여 창설할 수도 있다.

셋째, 해외유학생이 서부 대개발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유학생을 조직하여 서부지역을 시찰하고 프로젝트를 추진시킨다. 서부개발, 인력, 프로젝트의 여러 가지 요구 상황에 근거하여, 서부지역의 성과 都市를 계획적으로 조직 연결하여, 해외에서의 인력초빙 행사를 진행하고 정황을 소개함으로써 인력의 공급과 수요를 원활하게 연결시킨다.

넷째, 해외 유학생의 귀국 유치 방법을 혁신하여야 한다. 인터넷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외정보들과 교류하여야 한다. 유학생 과학연구프로젝트의 경비보조에 관한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주요학과, 중점 분야와 우수 유학인재에 대한 경비를 우선 지원한다.

유학생의 귀국정책과 관련하여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의 일화는 중국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을 잘 보여준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관련, 미국 방문길에 올랐던 1999년 주 전총리가 시간을 쪼개 MIT를 찾았다. 그는 중국 유학생들에게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 조국으로 돌아오라”며 호소한 바 있다. 그동안 귀국한 해귀파(海歸派)는 18만여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중국은 향후 20만 명을 더 유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창업했던 그들이 돌아오면 한 개인이 아닌, 자본·첨단기술·인적 네트워크가 함께 들어온다고 판단하고 있다. 2006년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가 인재공작회의에서 강조하면서 “인재 유치는 중국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고 결론을 지은 바 있다.

4.2 ‘海歸派’ 창업 원스톱서비스

중국 정부의 ‘해귀파’ 지원책은 모두 6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린 패스 (Green Path·녹색통로)’는 해외 유학생들의 중국 정착을 돕기 위한 첫 유인책이다. 베이징 거주민임을 증명하는 베이징 호구를 주고, 자녀 입학 문제, 차량과 주택 등 의식주를 해결하는 단계이다. 100㎡ 미만 규모의 집에 대해서는 집값이 40만 위안을 넘지 않으면 할부로 구입하도록 지원한다. 자동차 세금은 전액 면제된다.

창업자에게는 기업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특히 하이테크 기업으로 분류되면 3년 동안 기업세금을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 이는 해외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받은 유학생 전원에게 적용된다. 유학한 지역과 전공은 상관없다. 기업 등록에는 단 3일이 걸린다. 일반적인 기업들이 5-6일 걸리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기업을 설립하려는 유학생들에게는 전문기구가 법률, 시설, 등록 등 창

업에 드는 번거로운 행정 사항을 윈스톱으로 해결해 준다. 국적이 외국인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10만 위안이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학인원창업서비스총부에서 주관하는 서비스 체계가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와 메릴랜드대, 캐나다 토론토, 일본의 도쿄, 영국의 런던 등 해외 5개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학생들의 귀국을 돕는다. 인큐베이터 체계는 유학생들의 창업을 말 그대로 부화하는 단계이다. 중관춘 하이텐위안 창업원과 왕징 창업원 등에서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생명과학원, 소프트웨어원 등에서는 전문 분야별로 지원을 맡고 있다.

대학공유체계는 중국 내 대학과 기업의 자원을 공유하는 산학협력 방안이다. 대학 근처에 창업 관련 기관을 밀집시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유도한다. 프로그램 보급 체계는 매년 1월과 5월 투자상담회를 열어 창업을 희망하는 유학생과 투자자를 1대 1로 연결시켜주는 정책이다. 베이징의 경우 베이징 지적재산권거래소에서 투자 및 용자를 전담한다.

자금지원 체계는 이제 막 걸음마를 댄 기업들에 무상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다양한 조건과 평가에 따라 최고 10만 위안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한다. 과학기술부의 중소기업 창업기금, 인사부의 우수기업 창업기금 등 부처별 기금 외에 8·53기금, 9·73기금 등 정부 프로젝트에 의한 기금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프로젝트별 기금 대상자로 확정되면 정부 지원액의 50%를 기업이 속한 부화원에서 추가 지원한다.¹²⁾

중국 교육부는 2006년 8월 '111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세계 100위권 이내에 드는 유명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대가(大家)급에 속하는 학자와 중견 연구인재 1000명을 데려와 중국 상위 100개 학과에 열 명씩 배치하겠다는 야심찬 인재유치 프로젝트이다.

중국은 이들에게 주택과 자동차 등 생활편의시설과 소득세 감면 혜택, 파격적인 수준의 보수를 약속했다. 대가의 경우 1년에 1개월, 중견 연구 인력은 3개월 이상만 중국에 머무르면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¹³⁾

12) 김재천, 《서울신문》 2004.10.6.

4.3 1996년 이래, 국가 공식 파견 유학생과 귀국 이후 활동

1978년 이래, 약 20여만 명에 달하는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후 귀국을 선택하였다. 국가유학기금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6년 2월 까지 다양한 형태로 22,031명이 해외로 파견 및 유학을 떠났고, 그 중 학업을 마친 후 반드시 귀국해야만 하는 인수가 18,654명이며, 지정한 기한 내에 실제로 귀국한 인수는 18,098명으로, 귀국율 97.02%를 보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우수한 인재들의 귀국 숫자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많은 귀국 유학생은 첨단기술 및 IT관련 창업에 나서고 있다. 개혁·개방 이래 1985년, 중국은 처음으로 深圳에 과학기술단지를 건립하고, 1988년에는 국무원이 북경에 첨단 과학기술산업 개발 시험구로 정식 비준하였다. 이는 中關村高技術園區(중관춘 과학기술단지)로서 중국에서 첨단 과학기술 연구 및 개발의 중심이 되었다. 여기에는 8,000여개의 신기술 개발 기업이 자리 잡고 있으며, 기술관련 무역 총수입액이 1억 RMB(인민화폐)를 초과하는 기업이 180여개, 외자기업 1,400여개, 세계적 기업(500위 이내) 43개, IBM, 모토로라 등 첨단기술을 가진 다국적 기업들은 단지 내에 연구개발 기구를 설립하였으며, 3,600여 명의 귀국유학인원이 포진하고 있다. 창업기업은 1,200여개에 이르며, 聯想, 北大方正과 같은 중국 첨단과학기술 기업형의 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러한 단지들은 귀국유학생들에게는 무한한 발전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에는 첨단과학기술단지가 53개에 이르며, 여기에 18,000여 기업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귀국유학생을 유치 흡수하는데 있어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¹⁴⁾

13) 배민근, 《주간경제》 904호, 2006.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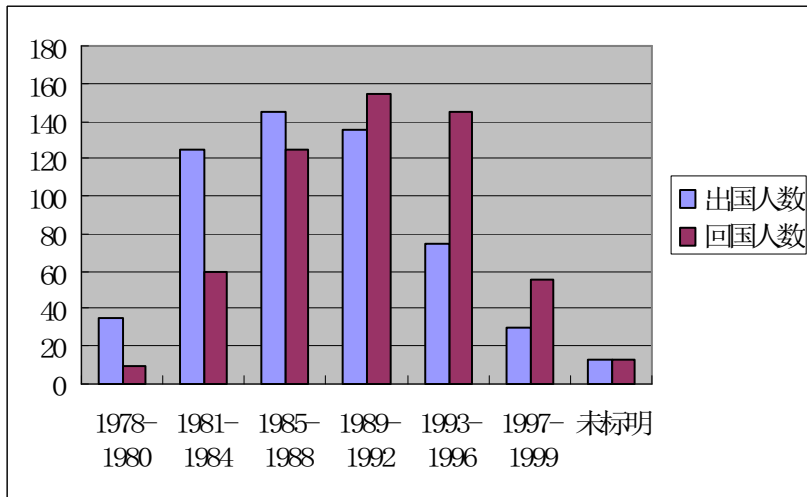
14) 於洪璋, <中國海外留學人員和“海歸派”的狀況調研報告>, *Journal of Ningbo University of Technology* March 2006.

<표 3> 국가파견 우수 귀국유학생의 출신 유학국별¹⁵⁾

파견 국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서유럽	북유럽	소련	동유럽	일본	캐나다 등	기타 국가	불명	총계
유학인수(명)	181	82	60	32	42	26	9	3	78	40	10	1	564
비율(%)	32.1	14.5	10.6	5.7	7.5	4.6	1.6	0.5	13.8	7.1	1.8	0.2	100

*서유럽: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페인
 *캐나다 등: 캐나다,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기타 국가는 북한, 필리핀, 멕시코 등

<그림 1> 국가파견 우수 귀국유학생의 출·귀국 시기별¹⁶⁾



2005년 북경시만을 예로 들더라도, 2005년 말까지 중관촌에 자리 잡은 귀국유학생 누계 수는 1,949명이며, 창업기업 누계 수는 1,376개 기업에 이른다. 이들 기업의 경제지표는 쾌속 성장하여 1997년 단지 내 귀국유학생들의

기업 자본금의 총액이 1280만 RMB에서 2005년 상반기에는 무려 21억 RMB까지 성장하였다. 단지 내 근무하는 종업원은 13,709명에 달한다.¹⁷⁾

5. 해외유학 엘리트들의 사회적 영향력

중화인민공화국 50주년(1949-1999)을 기념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귀국 유학생의 조국에 대한 기여도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수만 명 귀국유학생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해외 우수인재를 국내로 불러들여 적재적소에서 조국 현대화 건설에 기용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學者風華: 優秀歸國留學生業績錄》을 출판하였다. 당시, 그들에게 ‘歸國工作’, ‘爲國服務’ 그리고 이에 어울리는 ‘新移民=新華僑=新華人’이라 칭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관련기관에서는 이들을 귀국 유치하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정책개발에 열중하였다. 《學者風化花火》는 70년대 이래, 각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각종 상훈과 표창을 받은 424명의 우수인재들에 대한 자료를 수록한 것이다. 424명은 해외에서 학위를 수여한 자들이며, 국외 방문학자, 방문연구 혹은 객좌교수, 객좌연구 및 박사후과정의 연구자 및 연수생들을 포함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 이와 같은 출판물을 발표하는 중국 교육부의 의도는, “향후 중국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중국의 미래 발전방향과 전략에 대하여 귀국유학생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감의 표출로 볼 수 있다.

고급 엘리트 인재들은 각자의 전문영역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과 탁월한 연구 성과물 30항목을 취득했고, 국제적 수상과 국제특허 부분에서는 52개를 보유하고, 국내에서 부족한 연구 부분에 지대한 도움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내에서는 창조성 성과물 및 발명특허 282개를 갖고 있다. 이들이 참여한 연

15) 程希, <對優秀歸國留學人員的若干分析>, 《華僑華人歷史研究》, 2001.6, 第2期에서 재인용.
 16) 程希, <對優秀歸國留學人員的若干分析>, 《華僑華人歷史研究》, 2001.6, 第2期에서 재인용.

17) 趙峰, <北京留學人員團快速發展因素分析>, 《神州學人》, 2006.3.

구항목은 2000항목에 이르며, 개인 저서와 공저를 포함하여 천여 편의 저서를 발표하였고, 국내외에서 발표한 논문은 거의 1만 편에 이른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국가급 특별 공헌 전문가', '전국노동규범' 라는 칭호를 부여 받고, '21세기 우수인재 배양 계획'의 195인의 명단에 들어갔다. 그 중 175인은 국무원으로부터 지급되는 특수수당을 받고 있다.

이들의 국가공헌부문을 주로 전문연구 영역에서 특출한 역할을 발휘하였다는 것이다. 중국교육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 직속의 44개 대학의 총장 혹은 부총장 급의 지도자들, 국가 중점 실험실 주임, 정교수 혹은 박사생 지도교수, 중국과학원과 중국 공정원 원사 중에서 귀국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능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국가급 특별 공헌 전문가', 교육부의 '21세기 우수인재 배양 계획'의 인선에 선발된 전문가 중 3분의 2 이상이 근래 몇 년 사이에 귀국한 고급 인재들이다. '百千萬人才工程', '中國青年科學者賞', 중국과학원의 '百人計劃', '國家自然科學基金', '優秀青年專項人才基金', '863計劃'과 같은 국가급 중대 과학기술 관심항목들 중에서 근래 몇 년 사이에 귀국한 유학인재들이 많은 수를 차지한다. 또한 이들 귀국 고급엘리트 인재들은 지방 각 省급, 혹은 部급으로 중요한 지도자 신분으로서 지방으로 파견 나가기도 한다.¹⁸⁾

<표 4> 귀국유학생(고급엘리트)의 중국 내 각 지방 분포 및 귀국工作지역 분포

	청말 에서 중국의 항일전쟁 전까지, 4933명의 귀국유학생		개혁·개방이래, 424명의 우수 귀국유학생			
	중국 지방 각 성 분포		중국 지방 각 성 분포		귀국工作지역	
	인명수	비율	인명수	비율	인명수	비율
江蘇강소 (上海)상해	790	16%	41	9.7%	10	2.4%
浙江절강	648	13.1%	42	9.9%	12	2.8%

18) 程希, <對優秀歸國留學人員的若幹分析>, 《華僑華人歷史研究》, 2001.6, 第2期.

廣東광둥	633	12.8%	10	2.4%	10	2.4%
河北하북	364	7.4%	21	5.0%	4	0.9%
湖南호남	346	7.0%	19	4.5%	5	1.2%
福建복건	346	7.0%	20	4.7%	5	1.2%
四川사천	254	5.1%	28	6.6%	18	4.2%
江西강서	243	4.9%	16	3.8%	4	0.9%
安徽안휘	206	4.2%	13	3.1%	7	1.7%
湖北호북	198	4.0%	19	4.5%	19	4.5%
山東산둥	195	3.9%	30	7.1%	18	4.2%
河南하남	157	3.2%	13	3.1%	5	1.2%
遼寧요녕	107	2.2%	18	4.2%	5	1.2%
北京북경	—	—	16	3.8%	175	41.3%

한편, 미국 국가과학기금회의 통계에 의하면, 1989-1998년의 10년 기간 중, 중국인이 미국에서 자연과학 및 공정기술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수가 2만 명 이상이며, 이는 같은 분야에서 외국인이 미국에서 받은 박사학위 총수의 22%를 점한다. 그 중 대부분이 미국에 여전히 체류하고 있다. 근래, 중국인 유학생이 미국 IT벨리에서 스스로 창업한 기업 혹은 그 곳 기업들 중의 핵심 인재는 1만 명을 능가하고 있다.

<표 5>은 중국인(華人)이 미국 IT벨리 산업단지로의 이민 상황을 보여준다. 중국인이 전체 테크노벨리 산업단지 인재 중 차지하는 점유율이 점점 더 높아지며, 1970년 이전의 13%가 1980-1989년의 41%로 증가, 이는 중국의 인재유실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표 5> 중국인의 미국 테크노벨리 단지로의 이민 수

연도	중국인(명, %)
1980-1989	7921, 41 %
1970-1979	5697, 30 %
1970 이전	2491, 13 %

* 출처: U.S. Census. 1990. PUMS.

6. 중국의 해외유학정책에 대한 평가

중국은 해외 유학한 고급인재를 보다 활발하게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구사하며 이들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배정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중국의 유학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해 볼 수 있다.¹⁹⁾

첫째, 우수인력에 대한 관리가 일괄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으며 형식주의에 흐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일괄적인 지침아래 전문적인 관리 업무기구를 설립하고 국가의 공식과건 유학 관련 계획 및 해외 유학생에 관한 개발계획을 제정하며, 각 관련 부서들의 협조체계를 조직하여, 상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적절한 정책 및 법규 체계를 제정하고, 권위 있는 직능기구를 설립하며, 인재초빙조치에 완벽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범위에 따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순서관계를 바로 잡으며 각자의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하여 활용하는 업무를 정해진 방향에 따라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

둘째, 우선 해외 유학생 유치사업 또는 업무에 관한 전문 기금을 설립하고 학술연구와 기술개발에 상당한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학생들이 돌아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귀국여비, 정착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다방면에 걸쳐 유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계속 진행되어 왔지만 지원 정도와 금액 면에서 턱없이 부족하였던 것이다. 장기적으로 해외에서 거주한 유학생들은 국내 정치, 문화, 국정의 차이로 인하여, 국내 정착 시점에서 정부의 보조와 우대정책이 없다면 국내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귀국인재에 대한 정부의 보조와 우대정책은 필수적인 제도적 보호전략으로 볼 수 있다.²⁰⁾

셋째, 인사제도에 관한 개혁 중, 인재구축을 중시하며, 기존의 직명, 직무와 인사 분배 제도에 대하여 철저한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 각급 행정부문 권력하달의 속도와 강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법규에 따라 대학교의 학교운영에 관한 자주권을 실현하고 건전한 인력경쟁과 인센티브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관련 기관은 초빙임용 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제도를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직무와 전문기술직무의 종신제를 타파하여 경쟁을 통한 인력채용을 추진한다. 직명의 평가방법을 개혁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혁신을 강조하고 실제 능력을 중요시한다. 귀국한 유학인력, 특히 고급 우수인력에 대해 공개적 평가를 실시하고 다른 인력과 분리하여 이들을 초빙해야 한다. 고급 직무의 낮은 수준 초빙, 저급 직무의 높은 수준 초빙, 직무에 따른 보수제도 등을 개선함으로써 직무에 따른 분배에 있어서의 인센티브체제를 혁신해야 한다. 기업 또는 관련기관은 인재의 수입 분배 제도를 더욱 혁신하여, 그들이 기여한 바에 따라 보수를 결정함으로써 일류인재, 일류실적, 일류우대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우수한 젊은 인재를 대담하게 활용하고 개방된 인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들이 실력을 과시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넷째, 일반적으로 우수한 유학생들은 비즈니스 마인드가 강하기 때문에, 귀국 후 사업의 성공여부 및 개인의 가치관 실현여부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능력과 실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을 귀국으로 이끄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의 하나이다. 교육부는 인력을 영입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3개 등급의 인재계획체계를 수립하였다. 제1급은 '양자강학자 장려계획'을 위주로 하여 중국과학원과 중국공정원 원사급의 사다리식 후보인력 자원을 구성하고 있다. 제2급은 교육부의 '대학교 청년 교원상', '세기를 도약하는 우수인재 양성계획'을 위주로 특별초청 교수급의 사다리식 후보인력 자원을 구성하고 있다. 제3급은 '우수청년교원 보조계획', '대학교 중견교원 보조계획', 그리고 '귀국 유학생 과학연구 기동기금' 등의

19) 郭憲春, <吸引海外留學人員回歸的對策研究>, 《鞍山科技大學學報》2006年 第29卷 第2期, <http://www.cqvip.com/qk/97293a/2006002/22797570.html>; 채규철, <중국의 해외유학생 파견정책>, 《사회과학》, 38권 2호 참조.

20) 潘晨光·張久林, 《海外吸引專業人才戰略對策[A]》, 閔維方·王永達, 《全國出國留學工作研究會成立十周年文集[C]》(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2), 416-24쪽.

프로젝트를 위주로 하며, 이는 제2급의 인력계획의 사다리식 후보인력 자원을 형성하고 있다.²¹⁾ 3개 등급의 인력계획 실시이래, 오늘날까지 그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 유학생들에게서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귀국유학생에 대한 지원프로젝트를 강화하고 자금투입을 증가시키며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우수 유학생들이 국가적 업무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해외 유학생들은 중국 국내의 발전상황 및 해외인력에 대한 요구에 관하여 자신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관련부서의 지원하에 전체 해외유학생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중국유학넷'을 구축하고 의사소통과 정보연락에 필요한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각 지역, 각 부문에 분포되어 있는 유학인력정보 사이트(예, 교육부의 중국유학넷, 유학기금위원회넷, 신주학인<神州學人>넷)들이 정보교류 및 해외 유학생과의 연락 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총체적으로 각 사이트의 정보교류 역량이 부족하고 비교적 분산되어 있어, 해외 유학생들에게 여전히 정보의 출원지와 루트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 전국교육시스템 내 기존 자원을 바탕으로 하여 권위적이고 위치과약이 정확한 인력정보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일부 기존 자원에 대해 타당한 조정 및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정부차원의 자금투입, 정책지도를 확대하고 감독관리 하는 등, 작업의 강도를 높여 국내외가 서로 연결된 권위 있는 해외 유학생 사이트를 구축함으로써 편리하고 민첩한 인력공급 및 정보교류 루트를 제공해야 한다.

인재유치 관련 주요 사업은 중국 국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 간의 원활한 협력과 국제사회의 연합도 아주 중요하다.²²⁾ 또한 정부 사이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공식 파견 유학생의 본국 귀국을 보장하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하여 해외의 인력 육성 교류기구와 필요한 협의서를 체결하거나 필요한 공동

양해를 도모함으로써 유학, 연수 인원들의 높은 수준을 확보하고 기한에 따라 귀국하도록 해야 한다. 이외, 중국 국내에서도 지역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학 인력의 합리적인 이동을 보장함으로써, 지역 사이의 '자원공유'를 실현하고 유학 인력들이 이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반면, 중국 정부는 해외 유학생 파견을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하며 또한 두 가지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념적·사회적 전파의 문제와 고등인력의 해외유출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4개 현대화 건설'의 본격적인 추진과 서구 자본주의 사상의 유입으로 중국은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1989년 천안문 사태와 90년대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들의 붕괴로 위기의식은 더욱 고조되어 갔다. 이에 중국 정부의 해외유학생 정책은 유학생들이 서구의 사상적 오염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일반인들에게 반평등주의적인 정책으로 비추어질 가능성도 있었다.

최근 해외 유학생들이 고의적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귀국을 기피한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귀국을 회피하는 유학생은 그 수는 달리하지만 80년대 초반의 국비유학생들부터 80년대 후반에 대폭 급증한 자유 유학생들에 걸쳐 일반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89년 천안문 사태를 기점으로 불안정한 국내 정치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아마도 90년대 이후 귀국 기피 유학생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유학생들의 귀국 도피 경향을 우려하여 고급인력의 해외 유출이 국가에 끼칠 영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그 대책으로는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유학 이후 귀국 유학생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후속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주택 배정의 우선권을 주는 한편 관련 부처에 유학생 전담 고용기관 등을 설립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제도상으로 귀국 유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체계를 개선할 필요성도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열악한 중국 내 실험실과 연구소 환경을 들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전국의 여러 대학 내에 '박사 후 과정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21) 長江·楊頌, <我國吸引海外留學人才的對策建議[J]>, 《中國高等教育》, 2003(5), 27-29쪽.

22) 陳學飛, <試論新世紀我國公派留學的指導方針及政策選擇[J]>, 《北京大學教育評論》, 2003.1(1), 77-83쪽.

결론적으로 중국 정부가 과거처럼 중앙통제식으로 일방적인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모든 귀국 유학생들에 대한 정부 정책은 처음부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고급해외인재가 귀국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參考文獻 >

- 김재천, 《서울신문》, 2004.10.6.
 배민근, 《주간경제》, 904호, 2006.9.29.
 채규철, <중국의 해외유학생 파견정책>, 《사회과학》, 제38권 제2호, 《광명일보》, 1996.10.4.
 《서울신문》, 2009.4.13.
 《세계일보》, 2009.1.6.
 Journal of Ansh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Vol. 29, No. 2 April, 2006.
 《月鞍山科技大學學報》, 2006.4, 第29卷 第2期.
<http://www.cqvip.com/qk/97293a/2003003/7964494.html>
 郭憲春, <吸引海外留學人員回歸的對策研究>, 《鞍山科技大學學報》, 2006年 第29卷 第2期, <http://www.cqvip.com/qk/97293a/2006002/22797570.html>
 苗舟國, (中國國家教育部國際合作與交流司出國留國工作處調研員), 中國發展2003年第一期 僑海研究
 周桂榮·劉寧, 《現代財經(Modern Finance & Economics)》, No.2, 2006.
 於洪璋, <中國海外留學人員和“海歸派”的狀況調研報告>, *Journal of Ningbo University of Technolog* March 2006. (논문작성일 2005년 10월15일, 발표일 2006년3월.)
 趙峰, <北京留學人員園快速發展因素分析>, 《神州學人》, 2006.3.
 程希, <對優秀歸國留學人員的若幹分析>, 《華僑華人歷史研究》, 200.6(第2期).
<http://scholar.ilib.cn/A-QCode~hqhrlsyj200102003.html>
 潘晨光·張久林, 《海外吸引專業人才戰略對策[A]》,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2.
 閔維方·王永達, 《全國出國留學工作研究會成立十周年文集[C]》,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2.
 長江·楊頤, <我國吸引海外留學人才的對策建議[J]>, 《中國高等教育》, 2003(5).
<http://www.cqvip.com/qk/96957x/2003005/7654033.html>
 陳學飛, <試論新世紀我國公派留學的指導方針及政策選擇[J]>, 《北京大學教育評論》, 2003.1(1), <http://www.cqvip.com/qk/85604x/2003001/7284095.html>
 經濟合作與發展組織, <http://www.oecd.org/dataoecd/58/7/35367427.pdf>
 (검색일: 2009년 4월 24일)
 CIA, The World Fact 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ch.html>(검색일: 2009년 4월 15일)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09.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09/01/weodata/download.aspx>(검색일: 2009년 4월 15일)
 《神州學人》, http://www.chisa.edu.cn/chisa/article/20060606/20060606016158_1.xml
 《神州學人》, 2006.3, <중국자연과학기금“十一五”발전계획>. <중국사회과학기금>에 대해서는 전국철학사회과학계획관리공실 홈페이지 <http://www.npopss-cn.gov.cn>, 혹은 중국교육부 인문사회과학홈페이지 <http://www.sinoss.net> 참조.

< Abstract >

With its rapid development, China's core policy in regards to the expansion of its comprehensive national power, is one that is established through the utilization of its talented scholars within its immensely abundant highly educated and cultivated human power. Chairman Hu Jintao has expressed that he believed in "人才財源是第一財源", which holds the meaning that the utilization of talent is the number one economic resource. In efforts to attract talent, Chairman Hu has made efforts to establish new policies and organizations, has stressed the pivotal role of the returning study abroad students, and has also openly and frankly expressed the need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for such talents, found among both domestic and returning scholars to be fully utilized. As China approached the 21st century, it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focused on achieving its goal through science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and becoming a nation with of many highly talented scholars(人才強國).

Under the condition of a globalization of a world economy, a country's development and economic improvement is, in most cases, dependent on its accumulation of talent. The natural essence of competition in the fields of economy and science technology comes down to the War for Talent. At a point where it has been over 30 years since China's Reform and Open Door Policy, China is finding itself in the process of domestic research, in regards to the attraction and loss of talent caused by having its nationals study overseas. The country is working to establish diverse government policies to help attract talent, while it is also working to analyze and understand the primary obstacles that result in losses.

After taking a look at a general outline of the history of China's overseas education(section 2), this article will examine the general transition of China's overall study abroad population(section 3), followed by a look at the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its efforts to attract the talents of those who have been provided with overseas education, as well as the transitions of those who have been sent overseas through state organs, and their activities after returning to China(section 4). The next section will analyze the social influencing power that this elite group has over its society(section 5), and finally, the last section will be an evaluation of China's strategy for its elite, and its policies regarding overseas education(section 6).

Key Words: China's core policy, Hu Jintao, talented scholars, Open Door Policy, China's overseas education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09.2.28	2009.3.20	2009.4.4	2009.4.10	2009.4.30